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1. 2. 9.(화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부동산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한정희, 사무관 최용관·양승길, 주무관 이홍규 • ☎ (044) 201-3415·3413, 3416	
보 도 일 시		‘21. 2. 9.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 (조·석간 구분 없음)		

국토부,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 -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방안 마련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 - 특히,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,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이를 위해,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·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,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.
- 또한,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「(가칭)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」를 2월말부터 구성·운영할 계획이다.
 -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, 업계관계자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.

- 국토교통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, 6~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“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 라며,
 - “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최용관·양승길 사무관(☎ 044-201-3415·34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